



(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소견서

조남철(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8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남철 교수입니다. 회원 한분 한분 찾아뵙고 입후보한 이유와 앞으로의 일을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글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회에서 재무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미래발전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대 회장님들과 집행부의 이사님들이 학회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고자 이번 18대 학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우수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후속 세대를 위한 보존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보존과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회에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8대 학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회를 개편하고 새로운 보존과학 분야를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원들께 약속하고자 합니다. 제17대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정관 수정, 권역별 보존과학 활성화 등 주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 회원과 적극 소통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학회는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화제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관심사와 여러 분야의 필요한 의견들을 수시로 접수하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는 보존과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부족, 명예회장 및 고문들과 만남의 시간 부족, 세대 간 격차로 인한 교류 부족으로 학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학회-산학연, 세대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학술활동을 강화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학회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보존과학회지는 1년에 5회, 60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국내 타 학회지와 비교해도 명실상부한 보존과학 전문학술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Scopus를 진행하면서 학회지에 대한 규정, 국제 학술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토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학회지 내용면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새롭게 보존과학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자연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디지털 문화유산과 관련된 논문들을 적극 유치·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처리와 관련된 논문들도 일정 편수를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대회의 경우, 현재 분과 중심의 발표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보존과학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과학과 관련된 타 학문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들이 발표되어 학술대회가 교류의 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보존과학 분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보존과학 분야는 동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연구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자연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디지털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는 개인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학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존과학 분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식 분과 운영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과학 관련 ODA 사업들이 국가유산진흥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등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화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보존과학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우리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협력 ODA 사업분야에 학회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의 정식 분과, 관련 논문 등을 유치하여 보존과학 ODA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는 국내 보존과학과 관련된 정부기관, 보존과학업, 발굴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존과학이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

한 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 확대,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문화재과학회와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구분야로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적 교류가 아닌 연구자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본문화재과학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향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기후변화, 디지털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Working Group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만들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학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학회 전용 사무실을 충북 오송에 만들어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 규모에 비해 매년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현재 사무국 직원 1명만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회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회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학회는 다양한 사업 또는 연구용역을 적극 유치하고 참여하여 학회 재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향후 보존과학 분야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회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학회가 지금까지 유지 발전해 온 것은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그리고 보존과학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보존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보존과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모여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존과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일들을 적극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 귀하